

◆ 특 집 ◆

南美 電機工業 現況 (I)

『지난 11월 10일 부터 11월 23일까지 南美 電機工業 輸出市場 開拓團이 방문한 브라질등 3개국의 電機工業 現황을 2회에 걸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편 ■

1. 전력사업 형태 및 설비 현황

- 광산에너지성의 국가수리전력국 (DNAEE)이 개발설비의 계획, 건설인가, 전기요금 결정등을 포함 전력정책상의 모든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력사업 수행기관은 동전력국 관하의 브라질 전력공사 (Electrobas)로서, 동사는 전국을 4개 지구로 분할하여 Electronorte, Chesf, Furnas 및 Electrosul등 4개의 직할 전력공사를 산하에 두고 일부 私營電力會社와 함께 전력공급상의 책임을 맡고 있다.
- '88년말 총발전설비 용량은 49,000MW로 수력이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력 및 원자력이 15% 정도이다. 총 발전 전력량은 201,618GWh로 Amazon강을 비롯한 Parana tocantins 및 Xingu강 등 대하천의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수력이 약 91%에 이르고 있다.

2. 전력수급 현황

- '88년도 총소비전력량은 '87년 대비 8.5%나 증가한 212,177GWh였으며, 이는 최근 5년간 (1980~1985)의 년평균 신장율인 7.5%를 상회하는 것이며, 지역별로는 상파울로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이 최대 전력 소비지로 나타나고 있다.
- 2005년까지의 장기수급예측을 보면, 2005년의 소비전력량은 522,100GWh, 용도별로는 공업용 56%, 주택용 19%, 기타 25%로 현재의 구성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지역별로는 북부 지역의 신장율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장기 전원개발 계획

- 1987~1995년까지의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의 총설비 용량은 60,504MW로서 1986년의 1.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설내역을 보면 수력이 16,534MW, 화력이 1,150MW로 수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전기공업 수출·입 동향

-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고금리 긴축정책의 여파에 따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브라질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과 브라질 정부의 수출 인센티브 확대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변압기의 경우 '92년에 무려 148.3%의 급신장세를 보였다.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전동기, 발전기 및 변압기 등으로 '92년도의 전체 중전기기 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동기와 발전기류가 46.1%, 변압기가 35.2%를 차지하고 있다.
- 주요 수출지역은 미국으로 전체수출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91년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베네주엘라 등 인근 중남미 국가에 수출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 주요 수입품목은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으로 '92년도 전동기 및 발전기의 수입은 미불 124백만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의 28.9%를 점하고 있다.
- 경기위축으로 인한 중전기기 수요가 계속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는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92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46.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주로 미국 및 일본 등 모기업으로부터 부품수입이 많았으며, '92년도 부터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 '92년도 품목별 수입신장율(금액기준)을 보면 전동기 및 발전기가 151%, 변압기 및 유도자 등이 22.3%, 전기로 및 가열기기가 58.1%의 증가율을 보여 '92년도 수입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46.6%의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92 브라질의 전기공업 수출·입 동향〉

(단위 : 미화 천불)

H.S. CODE	수 출	수 입	비 고
8501	98,534	123,581	
8502	3,023	25,462	
8504	75,216	124,975	
8508	16,001	4,264	
8514	6,942	28,178	
8535	4,963	11,581	
8537	9,083	34,417	
8544	-	74,510	
계	213,762	426,968	

■ 칠레 편 ■

1. 전기공업의 수급 동향

- 중전기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은 주요 부품 수입, 조립을 통한 완제품 생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최근 5개년간 전기공업의 생산은 매년 약 10%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92년의 경우 전년대 비 25.3%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 국내생산 규모는 수입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태로, 절대수요가 수입완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92년도의 경우 전기로 및 가열기, 수직식 전동공구, 차단기, 전선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대 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공업의 현황 ('89년 기준)〉

업 체 수	근 로 자 수	총 생 산 액	총생산부가가치액
54개	5,254명	281 백만불	145 백만불

· 자료 : 칠레 통계 금속협회 (ASIMET)

〈전기공업의 생산 추이 (1979년 = 100기준)〉

1988	1989	1990	1991	1992
141.3	153.2	161.2	172.1	197.4

· 자료 : 칠레 중앙은행

2. 전기공업의 수출·입 동향

○ '92년 칠레의 수입은 배전제어반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수입호조 품목 (10% 이상 증가) : 전기로 및 가열기, 수지식 전동공구, 차단기, 전선,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 수입부진 품목 (5% 미만 증가) : 전동기 및 발전기,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감소 품목 : 배전제어반 (전년비 - 11.6%)

○ 국별 수입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독일의 시장지배력이 높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브라질, 대만, 한국, 중국 등의 시장참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년도 증전기기 수입실적〉

(단위 : 천개, 미화 천불, CIF)

H.S.CODE	'91년 금액	수 량	'92년 금액	전년비 증감율 (%)
8501	30,184	506.8	31,299	3.7
8502	15,088	10.7	15,513	2.8
8504	20,911	1,484.9	23,576	12.7
8508	8,504	264.2	11,679	37.3
8514	3,739	10.7	10,140	171.2
8535	8,706	362.4	10,657	22.4
8537	14,599	75.5	12,904	-11.6
8544	26,045	5,145.4	31,748	21.9
계	127,776	7,860.6	147,516	

· 자료 : 칠레 중앙은행

〈품목별 국별 시장진출 현황〉

품 목	시장지배 현황 ('92년 수입총액대비 비중)
다상 교류 전동기 (출력 750W 초과 75KW 이하)	독일강세, 수량 9,893개(32.8%), 금액 3,055천불(35.5%)
단상 교류 전동기 (출력 100W 이하)	한국 최대수출국, 수량 187,198개(56.7%) 금액 2,380천불(32.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전반적으로 미국산 시장석권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 외	중국산 저가 공세, 시장석권
안정기	수량 412,885개(70.3%), 금액 248천불(27.4%)

품 목	시장지배 현황 ('92년 수입총액대비 비중)
유입식 변압기 (10,000KVA이하)	브라질 강세
수지식 전동공구	독일강세, 한국 수출 전무
개폐기	전반적으로 선진국 강세 브라질 : 전압 7.25KV-72.5KV용량 제품 강세
전 선	전반적으로 미국산 시장석권 대만 : 플라스틱 절연전선(전 80V 이하) 최대 수출국 한국 : 종이 절연전선(80V 이하) 645,368NET KG(48.4%), 금액 3,162천불(50.0%) 미국 : 광섬유 시장 석권

○ 칠레의 중전기 수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변압기, 전선 등이 인접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92년 중전기 수출 현황〉

(단위 : 미화 천불)

H.S. CODE	수 량	금 액
8501	3,088	116
8502	24	110
8504	528,725	1,025
8508	5,279	104
8514	20	147
8535	1,629	51
8537	516	259
8544	1,224,593	3,679
계	1,763,874	5,491

· 자료 : 칠레 중앙은행